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1년 10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안영준 프란치스코님, 김난영 올리아님께서 후원 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7~8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33,501,388		
구 분	2021년 7월		2021년 8월	
자 동 이 체	736명	11,541,370	709명	9,941,094
지 로	46명	1,250,550	108명	1,322,083
CMS이체	103명	1,240,370	99명	1,205,847
합 계	885명	14,032,290	916명	12,469,024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4,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2,4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4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2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6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1,0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200,000	의료비 등
	인도네시아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상호문화센터	1,4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20,850,00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6,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6,651,388	우편비, 출판비 등 운영비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33,501,388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2021. 09 / 제59호

펴낸날 2021. 09. 15.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신부님 글

받아들이는 복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사 발령으로 이주사목위원회 식구가 된 유상혁 요한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곳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 모두가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설레임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땅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있던 사람들이 환대하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 안에서 새로운 이주민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느님을 원망하며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선포되는 하느님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느님을 내 안으로 모셔오는 수용적인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선포되는 복음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복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방인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삶의 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전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나에게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편협한 마음으로 다가가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잘못된 이들을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의지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긴 여정이 시작되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성령의 보호 안에서 누군가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에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세례자요한 신부

공동체 소식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소식*



한국 교회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고자 노력하면서, 아울러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려움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에 가려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사건들이 있습니다. 섬에서 짐승처럼 부려지다가 탈출한 한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혹한의 추위에 동사한 캄보디아 여성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차별 대우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목숨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어려운 현실과 고통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관과 단체가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변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다가옵니다.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레위 19,33-34).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면 좋겠습니까? 올해 제 107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당신의 회칙을 인용하며 하신 말씀을 새겨 봅니다. "보건 위기가 지난 뒤에 최악의 반응은 열광적 소비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이기적 자기 보호에 더욱더 빠뜨려지는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다른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모든 형제들』, 35항). 이는 더욱더 넓은 '우리'를 지향함으로써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로지 '나'만을 위하고 '자기 나라'만을 위한 폐쇄적인 편협함에서 벗어나자는 호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또한 교황께서는 '우리'라는 의식에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교황께서 호소하시는 더욱더 넓은 '우리'는, 보편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더 넓은 '우리'는 인류를 다양성 안에서 친교를 맺고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2021년 9월 26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주교

- 담화문 원본은 이주사목위원회 홈페이지를(<http://www.seoulmigrant.net/>)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교회의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세계 이민의 날(9월 마지막 주일) 명칭을 보편 교회에 맞추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World Day of Migrants and Refugees)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이주민들과 다 함께 드리는 축복 나눔 미사는 아쉽지만 올해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별 공동체 기념미사 안에서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며 저희가 만나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국공동체 소식*

집전사제 부재로 그 동안 중단되었던 중국공동체 미사가 지난 6월 27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미사 드릴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사시간	매월 넷째 주일 11:00
장 소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5층 경당



사제 인사 발령 소식*



지난 2년 동안 이주사목위원회에서 함께하신 이광휘 베드로 위원장 신부님께서 8월 20일 사제 인사 발령으로 이주사목을 마치고 프랑스 선교 사목을 파견받아 떠나셨습니다. 코로나 19 상황 안에서의 해외선교는 더욱 어려우실 텐데 주님 보호 아래 선교지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고 건강히 사목활동 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유상혁 세례자요한 위원장 신부님께서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시는 사목활동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소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주는 고용허가제라는 고용제도가 있습니다.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올해 17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고용 기간은 기본 3년, 사업주 재고용 시 1년 10개월을 연장해 총 4년 10개월이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3년간 3회로 제한합니다. 2012년 도입된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 한해 사업주가 재고용할 경우 출국 후 재입국하면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노동자가 1개월 안에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등록 후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미등록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나 폐업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은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작년 겨울,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숙 행 씨가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가 부각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임시 가건물 숙소 제공 사업장에 고용 허가 불허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바뀌는 정책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소식*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주교들에게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사회의 변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은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연대하여 '길을 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동행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7시 명동성당에서 봉헌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은 이주사목위원회의 주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인종과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하느님의 같은 자녀이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고 이겨 낼 수 있도록 미사 안에 봉헌 드리겠습니다.